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World Bamboo Fair Damyang KOREA 2015
http://www.damyangbamboo2015.kr
대숲에서 찾은 녹색비전
담양에서 45일간의 녹색 향연이 펼쳐집니다.
2015.9.17~10.31 죽녹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91호 1판 (음력 8월 25일)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어렵사리 되살린 '무등산 반딧불이' 원효계곡 준설공사에 사라질 위기

광주 북구청 착공, 평촌마을 주민들 "5년간 복원노력 물거품 우려"

핀란드공원청은 '우수사례' 방문

무등산 반딧불이(개똥벌레)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은 평촌마을(반디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광주 북구청이 준설에 나섰기 때문이다.

평촌마을은 국내 최초의 도시형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주민들이 5년동안 서식처 복원을 통해 반딧불이 개체 수를 늘린 곳이다. 〈광주일보 9월 21일 7면〉

특히 한국을 방문한 핀란드 공원청 대표단이 7일 '국립공원과 마을의 공존사례'로 판단하고 방문할 예정으로 반딧불이 서석지 파괴를 초래하는 하천 준설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5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청은 재해예방을 위해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앞을 흐르는 풍암천(원효계곡) 200m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를 지난달 1일 착공했다.

혹시 모를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을 막으려고 폭 25m짜리 하천 바닥을 50㎝가량 파내고 주변 수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천 준설은 반딧불이 서식처 파괴를 걱정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중단됐지만, 북구는 조만간 공사를 강행할 방침을 내비쳤다.

문제는 반딧불이의 서식지인 하천을 준설하는 공사를 '소규모 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전문가는 물론 환경부서와도 협의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주민 대다수와 공원관리청인 무등산관리사무소 측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경우 마을 이름도 평촌마을과 함께 '무등산 반디마을'을 쓸 정도로 반딧불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다,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인 다슬기를 매년 하천에 풀고 우렁이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등 서식지 복원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평촌마을의 한 주민은 "마을 하천은 최근 10년간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었다. 설사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라 해도 불과 한두 달 사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구 관계자는 "공원 구역 밖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으로, 하천을 완전히 갈아 엎는 공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충으로 자리기 전 반딧불이는 8개월에 걸친 애벌레 시절 다슬기를 먹이로 수중생활을 하는 탓에 하천 생태와 먹이 공급이 반딧불이 서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무등산 원효계곡 준설공사

김환기 작품 47억2100만원… 경매 최고가

박수근 '빨래터' 9년만에 경신

김환기 화백의 1971년작인 전면 점화 '19-Ⅷ-71 #209'(253×202cm)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작품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바꿔놓았다.

서울옥션이 5일 홍콩 르네상스 하버뷰 호텔에서 실시한 제16회 홍콩경매에서 김환기의 1971년작인 전면 점화 '19-Ⅷ-71 #209'(253×202cm)가 3100만 홍콩달러, 한화 약 47억2100만원에 아시안 컬렉터에게 낙찰됐다.

이로써 이 작품은 2007년 5월 서울옥션 국내 경매에서 45억2000만원에 낙찰된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를 제치고 9년만에 국내 작가 미술품 중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작품은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단색화 전시에 출품됐던 4점 중 한 점으로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김환기 작가의 전면 점화 가운데 가장 큰 대작(大作)이다. 지금까지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김환기의 작품은 '꽃과 항아리' 80호로 30억5000만원에 팔려나갔다. /연합뉴스

영산강 은빛 가을 6일 나주시 나주대교 아래 억새평원을 찾은 연인이 은빛 물결을 이루는 억새 사이를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나주시는 25일까지 나주대교와 빛가람대교 사이에 조성된 억새평원에서 '나주 영산강 억새와 사랑축제'를 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주의 전당' 광주·마산 빼고 서울에만 건립 추진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광주시, 사업 추진 적신호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이 수년간 예산 지원이 없어 사업 성사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애초 합의된 광주와 마산을 배제한 채 서울에만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이전을 앞둔 광주교도소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한국 민주주의 전당과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복합시설)'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13년 11월 27일 광주·마산 추진위원회, 기념사업회 간 삼자 합의 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각 지역 추진위와 기념사업회는 유력한 건립 후보지였던 서울, 이명박 정부 당시 공약했던 광주, 상대적으로 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마산이 경쟁을 접고 각 지역에 분산해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기념사업회는 합의 내용과 달리 서울에 전당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 '재점화'

이낙연 지사 "논의할 때 됐다" 광주시 원칙은 '군공항과 함께' 통합과정 상당한 진통 따를 듯

호남고속철 개통과 함께 쇠락하고 있는 광주공항과 활성화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은 사실상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두 공항 통합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광주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통합문제는) 광주시 및 광주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나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민선 6기 출범 후 발족한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루길 바란다"는 구체적인 논의 방식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광주의 군공항 이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남의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며 의견을 묻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가 이전과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안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공항 통합을 먼저 다루고,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의 제안 후 논의하는 등 별개의 문제로 보고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시·도 간 논의 과정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국방부 민간위원 자문 의견을 받는다. 이어 내년 상반기 국방부 평가위원회의 타당성 평가를 받는 등 군 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문제는 지금까지 꾸준히 내부 논의가 진행됐으나 군 공항과의 연계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생명의 땅 전남
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2015.9.17~10.31 죽녹원

우리의 농UP!
희망의 농UP!

2015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2015. 10. 15.~11. 1.(18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나주시 산포면)

생명의 땅 전남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농업 축제!
소통과 교류, 체험과 재미, 미래와 현재가 함께하는 곳,
2015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릴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세계와 함께, 우리 농업과 함께!
2015국제농업박람회!
www.iae.or.kr

2015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홍진영이
응원합니다.